

물가 상승

청년 1인 가구의 지출 우선순위 변화

1. Introduction

“청년 개인의 연간 평균 소득은 2,625만원”

(출처:2024 청년의 삶 실태조사, 국무조정실)

“취업한 청년층 3가구 중 1가구가 근로소득의 20%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다”

(출처:청년층 3명 중 1명, 소득 20% 이상 주거비로 지출...평균 48만6000원,조선비즈)

“청년 1인 가구, 물가 안정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”

(출처:상반기 물가 2%대 달성...청년 1인 가구 "체감 못 느낀다",1코노미 뉴스)

1. Introduction



- **소비자 물가 지수**: 가구에서 일상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 지수 (2020년 = 100)
- **생활 물가 지수**: 체감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가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생필품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수 (2020년 = 100)

1. Introduction

| 1인 독립가구 청년들은 물가가 상승하면 어떤 지출항목부터 줄일까?

01 물가가 오르면 필수품목과 비필수품목 중 비필수품목의 소비를 줄일 것이다

02 물가가 오르면 외식에 사용하는 지출을 줄일 것이다

03 물가가 오르면 취미생활에 사용하는 지출을 줄일 것이다

2. Method

| 분석방법



데이터

-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**가계동향조사 자료**
-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**연도별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** (2020=100)



변수정의

- **연령그룹** : 대학생(19-24세), 사회초년생(25-29세), 30대 초반(30-34세)
- **직업군** : 전문가(관리자,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), 사무직(사무종사자),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(서비스 종사자, 판매종사자), 육체노동자(농림어업숙련종사자, 기능 및 관련 기능 종사자,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, 단순노무 종사자)
- **소득군** : 200만 원 미만, 200-300만 원 미만, 400만 원 미만, 400만 원 이상

2. Method

| 분석방법



분석대상

가설 1.

- **필수소비항목** : 식류품비주류음료구입비, 주거수도광열비, 보건제품구입비, 교통비, 통신비
- **비필수소비항목** : 주류담배구입비, 의류신발구입비, 가정용품가사서비스구입비, 오락문화비, 교육비, 음식숙박비, 기타상홈서비스이용비

가설 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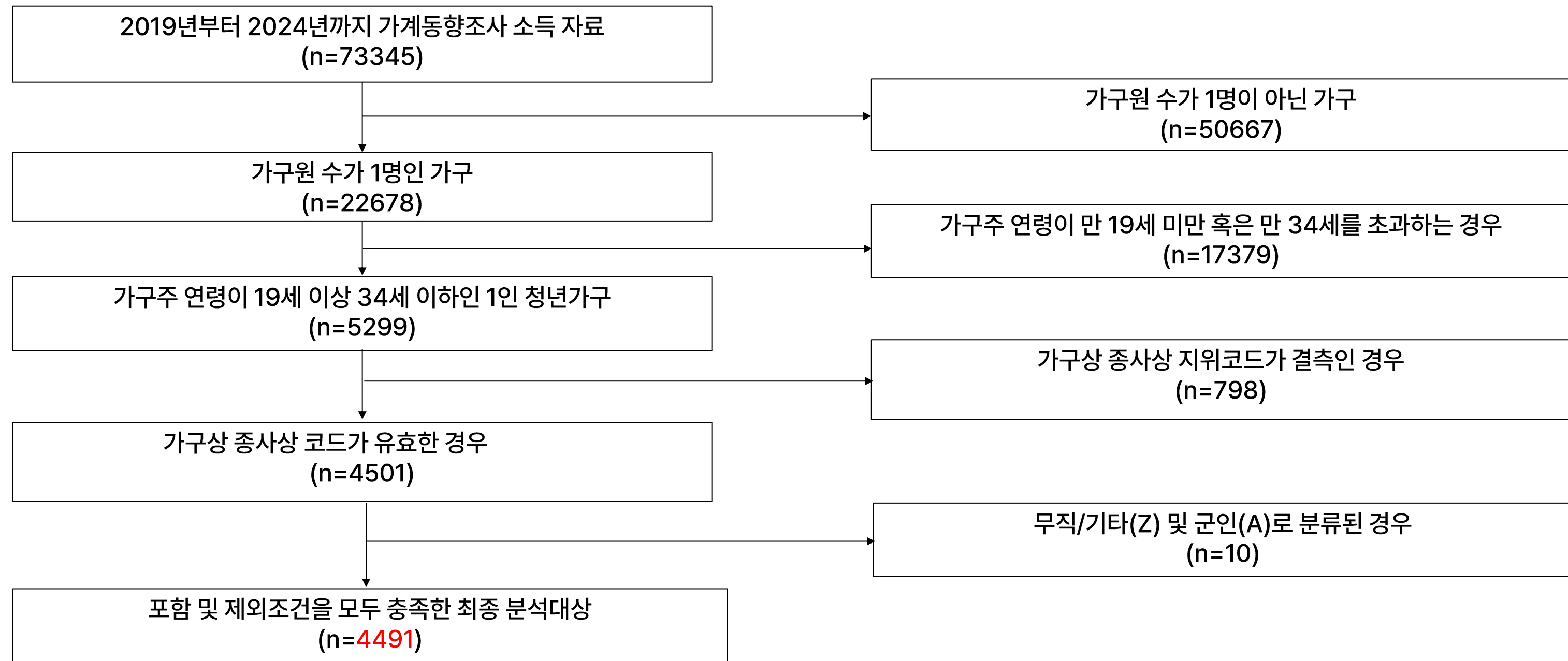
- '**가계지출_소비지출_음식숙박_식대**' 항목을 외식비 지출로 정의
- 실질지출 분석을 위해 통계청 연도별 지출 목적별 소비자물가 중 '**음식 및 숙박**' 항목을 디플레이터로 활용

가설 3.

- '**가계지출_소비지출_오락문화**' 항목을 취미비용 지출로 정의
- '실질지출 분석을 위해 통계청 연도별 지출 목적별 소비자물가 중 '**오락 및 문화**' 항목을 디플레이터로 활용

2. Method

| 포함 및 제외 기준



2. Method

| 표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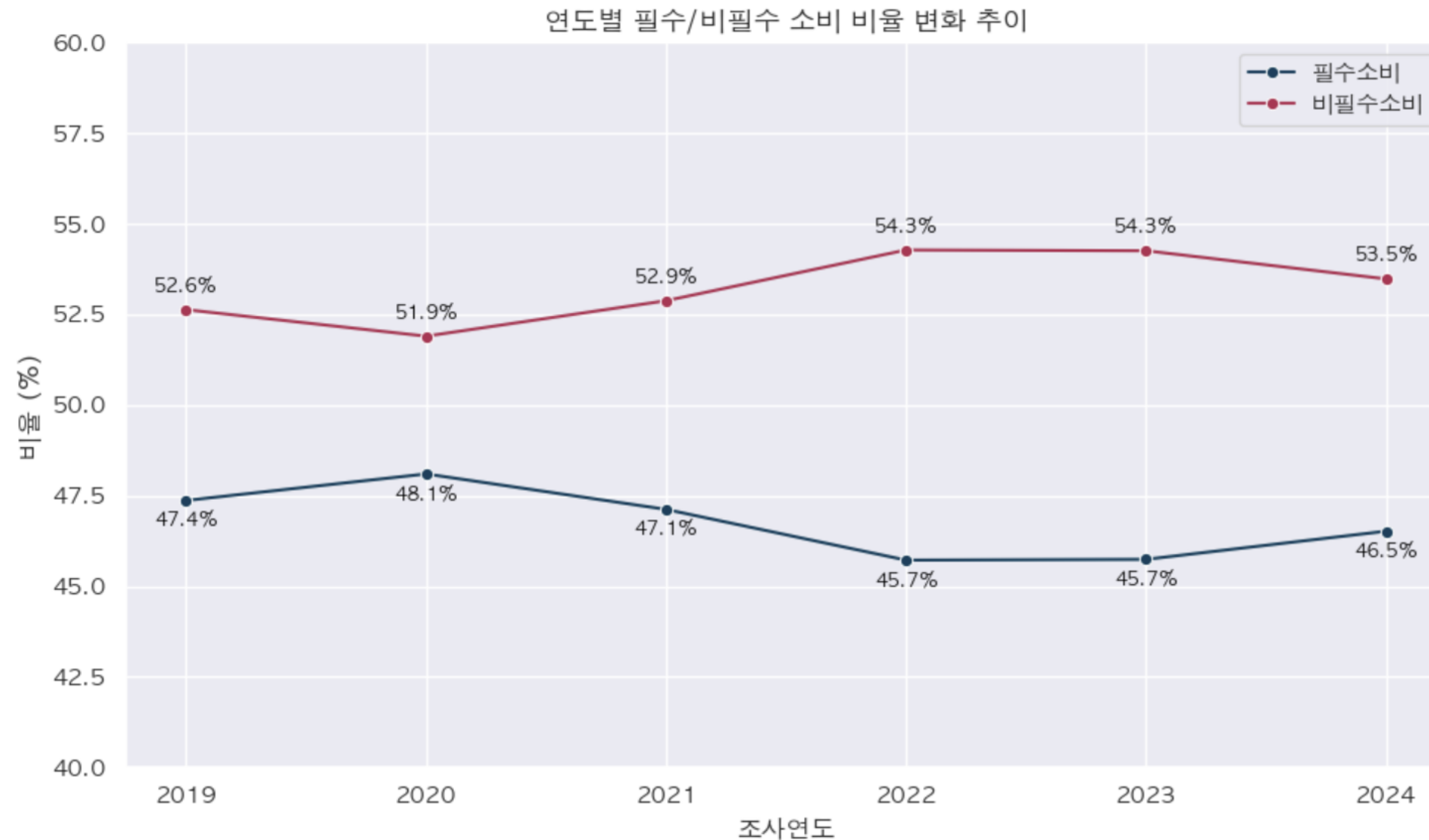
- 물가상승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실질지출비를 계산하였음.
- 실질지출비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 도출함.

$$\text{실질지출비} = \text{명목지출비} * \frac{100}{\text{해당연도 물가지수}}$$

-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지출 금액을 '실질지출비'로,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을 '명목지출비'로 정의함.
- 가설 2와 가설 3에서는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 외식지출비를 산출함.

3. Result (1) 물가가 오르면 필수항목과 비필수항목 중 비필수항목의 소비를 더 줄일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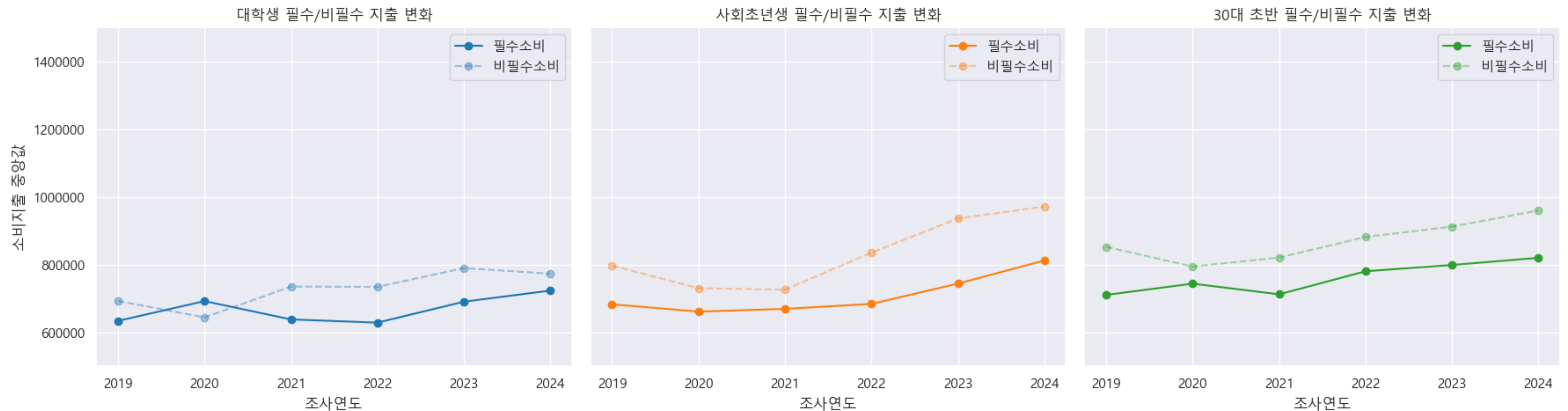
결과 1: 연도별 필수/비필수항목 소비 추이



- 2019년부터 2024년 청년 1인 가구의 소비구조는 비필수 소비비중이 필수소비를 상회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여 자기만족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기반 소비 경향이 보이고 있음을 시사함.
- 팬데믹 이후 2024년 필수소비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은 실질소비 감소라기보다는 물가 상승에 따른 지출의 증가로도 해석할 수 있음.

3. Result (1) 물가가 오르면 필수항목과 비필수항목 중 비필수항목의 소비를 더 줄일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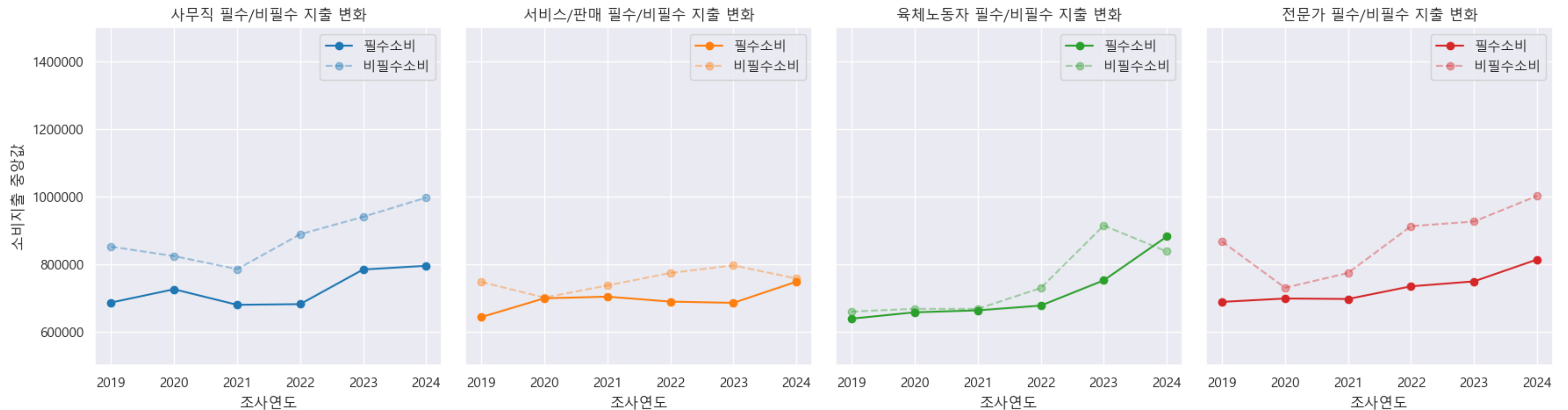
결과 2: 청년 연령층별 필수/비필수항목 소비 변화 추이



- 청년 1인 가구 내에서도 연령별 소비 양상은 상이하며, 사회초년생은 필수소비 증가와 함께 선택적 소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.
- 대학생은 낮은 소비수준을 보이며, 2024년 비필수 소비의 소폭 하락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외부요인(예: 물가상승 등)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 구조라고 해석할 수 있음.

3. Result (1) 물가가 오르면 필수항목과 비필수항목 중 비필수항목의 소비를 더 줄일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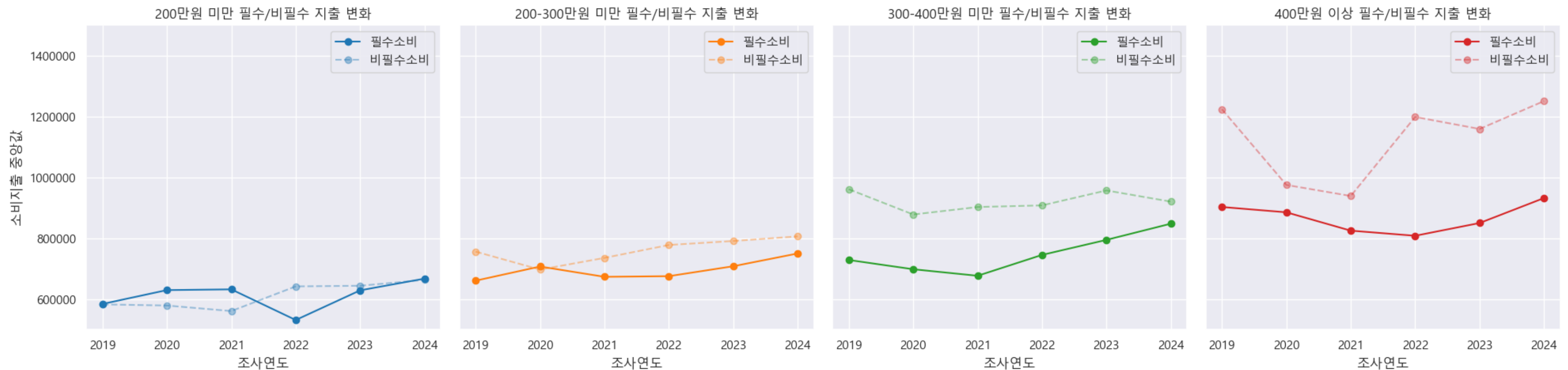
결과 3: 청년 직업군별 필수/비필수항목 소비 변화 추이



- 직업군별 필수 소비는 전문가, 사무직, 육체노동자, 서비스/판매직 순으로 나타나며, **직업 특성에 따라 생활비 구조에 차이**가 있음.
- 2024년 육체노동자의 필수 소비가 급증한 것은 생활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가중되었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음.
- 서비스/판매직은 2021-2023년 동안 소비의 증가폭이 작아 다른 직업군에 비해 소득 증가가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음.

3. Result (1) 물가가 오르면 필수항목과 비필수항목 중 비필수항목의 소비를 더 줄일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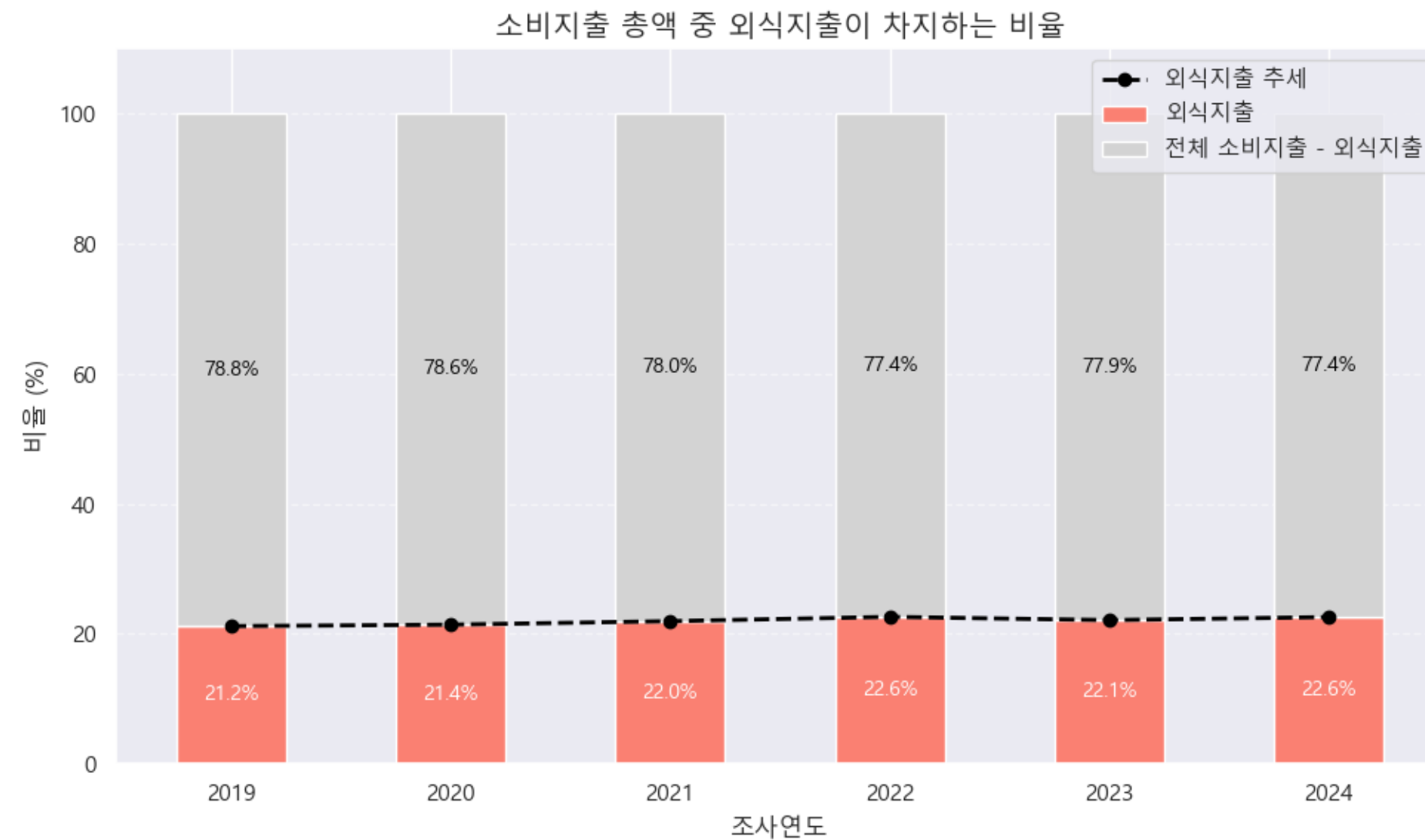
결과 4: 청년 소득군별 필수/비필수항목 소비 변화 추이



- 비필수소비는 소득 수준과 비례하는 구조를 보임. 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기본 생활비 외 비필수항목에 지출할 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.
- 소득 400만원 이상 그룹은 비필수소비 비중이 가장 높고 변동성이 큰 반면, 저소득군은 비필수소비 여력에 제한되어 있음.
- 이는 소득 격차가 소비 구조와 생활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.

3. Result (2) 물가가 오르면 외식지출을 줄일 것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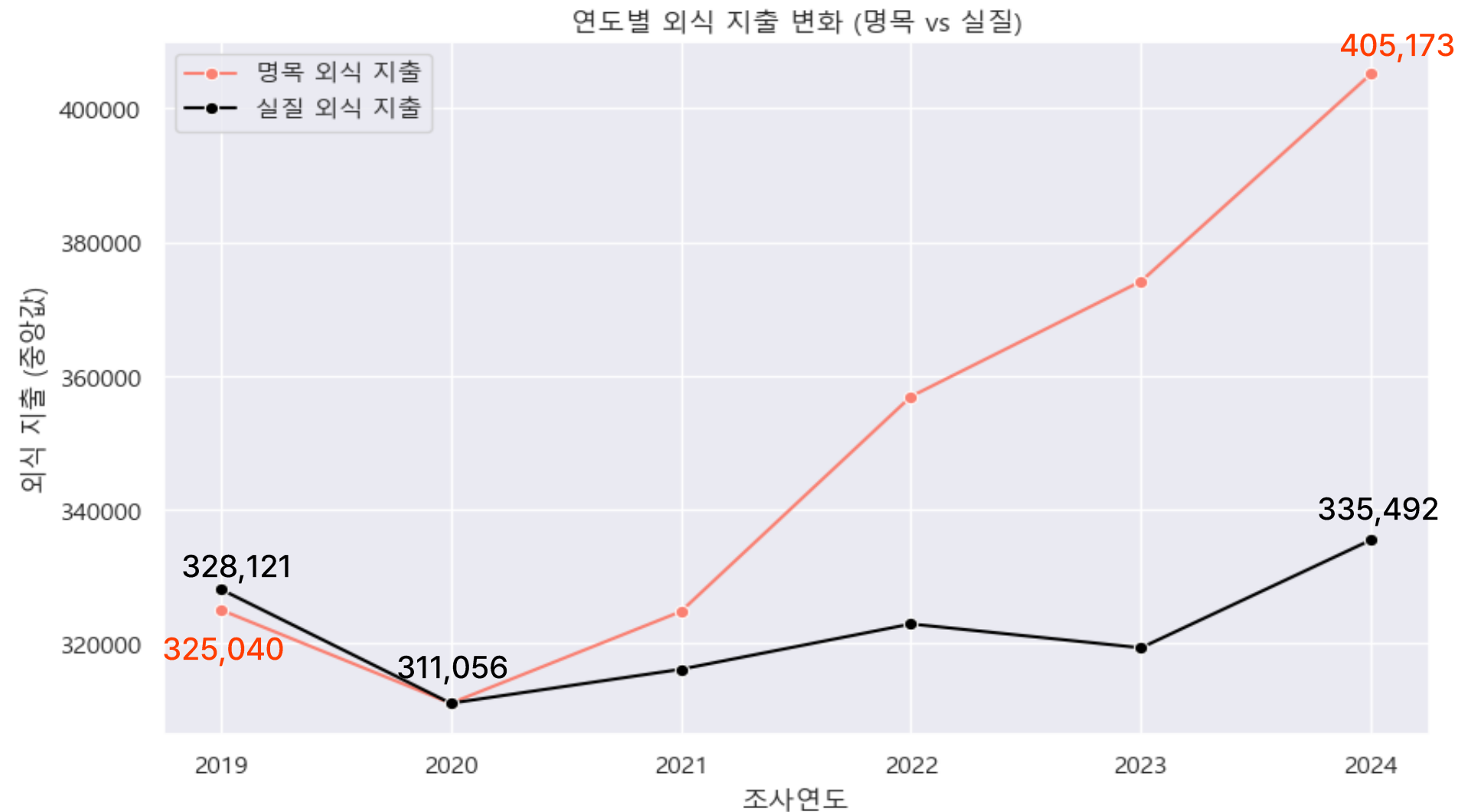
결과 1: 연도별 소비지출 총액 중 외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



- 외식지출은 전체 소비지출 대비 비중이 연도별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, 연도별로 변화가 크지 않음.
- 소비패턴의 변화를 비율로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값을 기준으로 외식지출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.

3. Result (2) 물가가 오르면 외식지출을 줄일 것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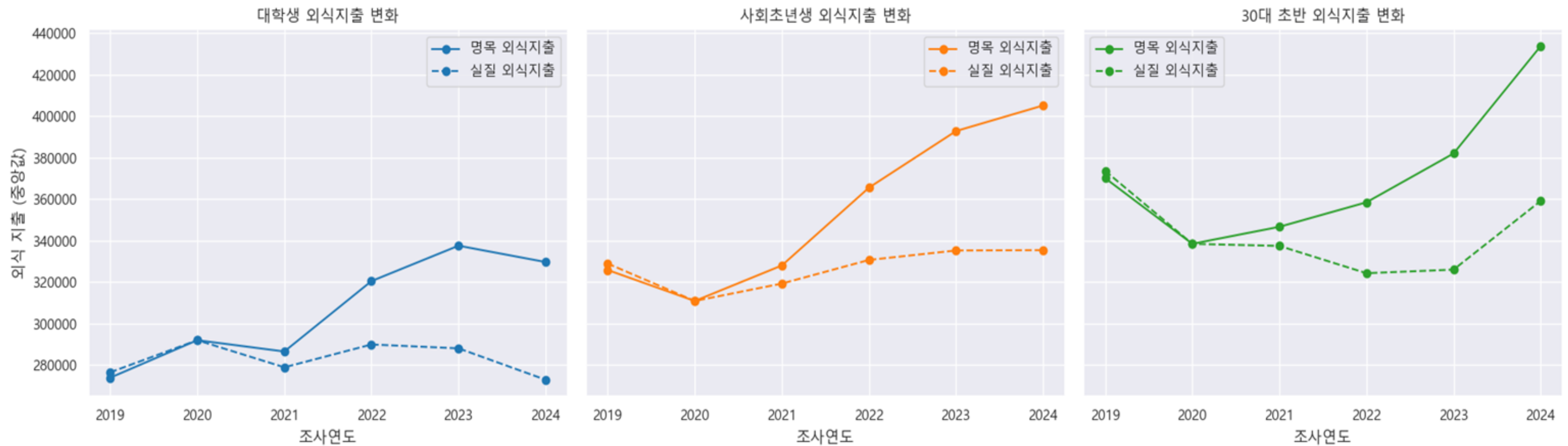
| 결과 2: 연도별 외식 지출 중앙값 비교 (명목 vs 실질)



- 2023년 명목 외식지출은 증가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외식지출은 감소하여 외식 빈도나 양의 증가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
- 2022년 이후 명목 외식지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물가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실질지출 증가는 제한되어 청년층의 실질 소비가 물가 부담으로 위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.

3. Result (2) 물가가 오르면 외식지출을 줄일 것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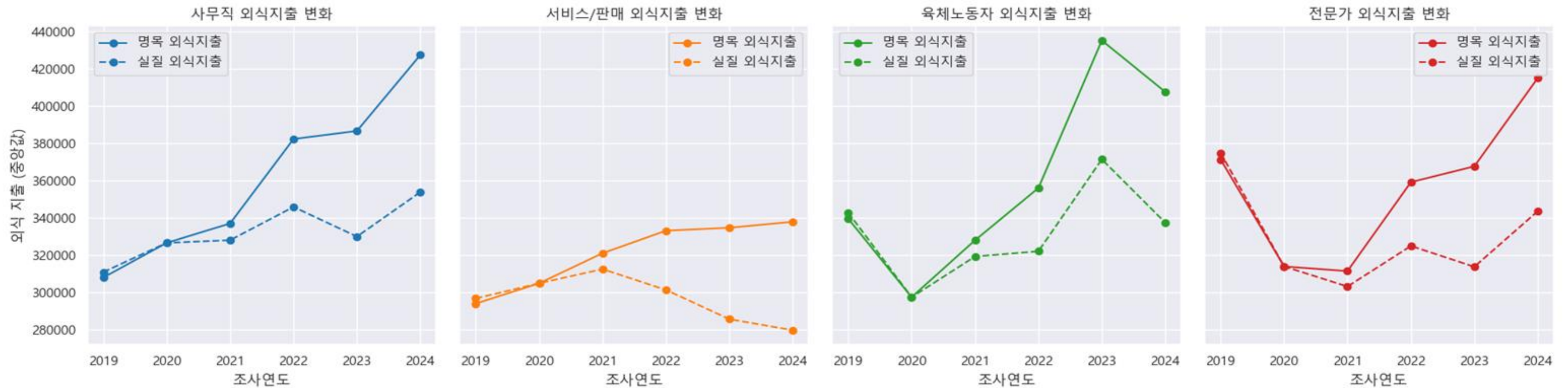
결과 3: 청년의 연령층별 외식지출 변화 추이



- 대학생은 2022년 이후 명목 외식지출이 증가했으나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질지출은 감소했고, 2024년에는 명목지출도 소폭 하락함.
- 사회초년생과 30대 초반 모두 2022년부터 명목 외식지출이 증가했으나, 사회초년생은 실질지출이 감소한 반면 30대 초반은 2024년부터 실질 지출이 회복되어 외식 구매력의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.
- 전 직종에서 외식지출 증가세가 관찰되나 외식물가 상승이 실질 소비여력을 제한하며 전반적으로 체감 외식비 부담이 심화된 것으로 평가됨.

3. Result (2) 물가가 오르면 외식지출을 줄일 것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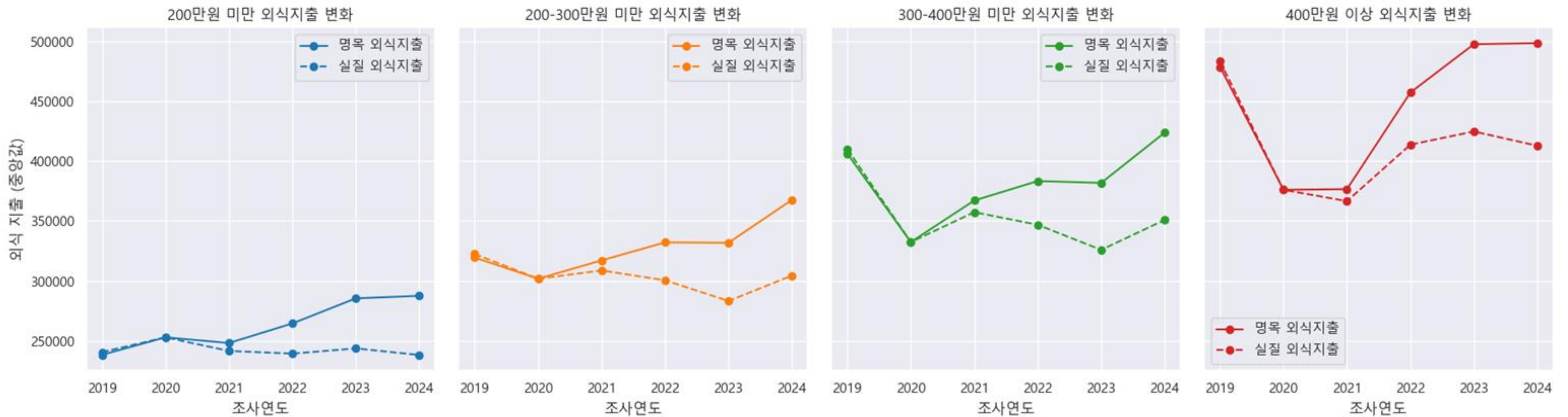
결과 4: 청년의 직업군별 외식지출 변화 추이



- 모든 직종에서 명목 외식지출은 증가했으나 실질 외식지출은 제한적 증가 혹은 감소를 보여 **외식비 지출 증가가 실질 구매력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음**.
- 직종별 실질 외식지출은 전문가 및 사무직은 2023년 감소 후 2024년 반등, 서비스/판매직은 지속 감소, 육체노동직은 2023년 급증 후 2024년 급감하는 추세임.
- 이는 외식 체감물가가 직종별 경제 여건과 노동시장 구조에 따른 상대적 소비 여력을 반영함을 시사함.

3. Result (2) 물가가 오르면 외식지출을 줄일 것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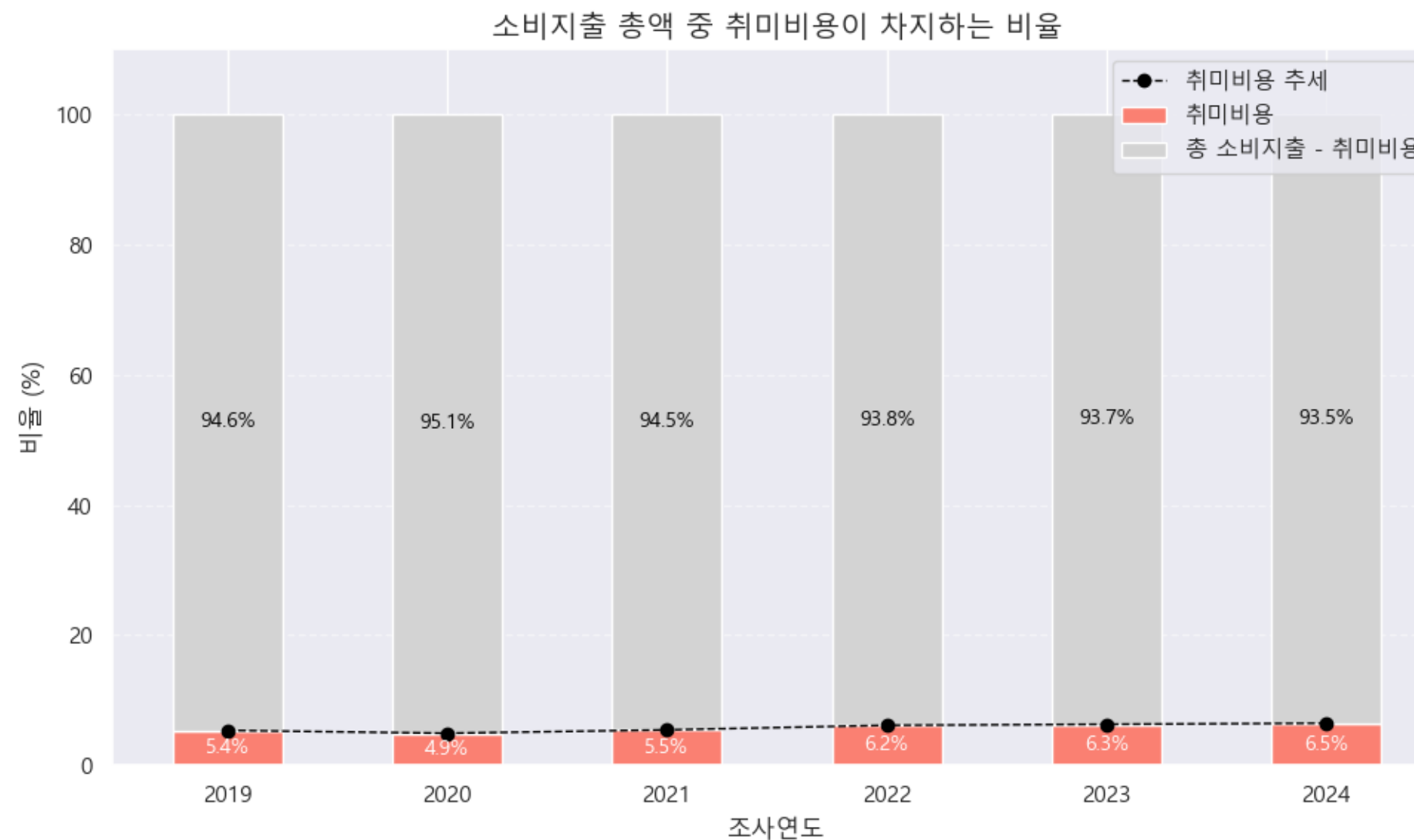
결과 5: 청년의 소득별 외식지출 변화 추이



- 모든 소득 구간에서 명목 외식지출은 증가했으나, **실질 외식지출은 정체 또는 감소하는 경향**을 보임.
- 고소득층은 외식소비 회복이 두드러졌으나 2024년 다소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은 외식지출 변화가 작고 실질 소비 여력이 제한됨.

3. Result (3) 물가가 오르면 취미생활에 사용하는 비용을 줄일 것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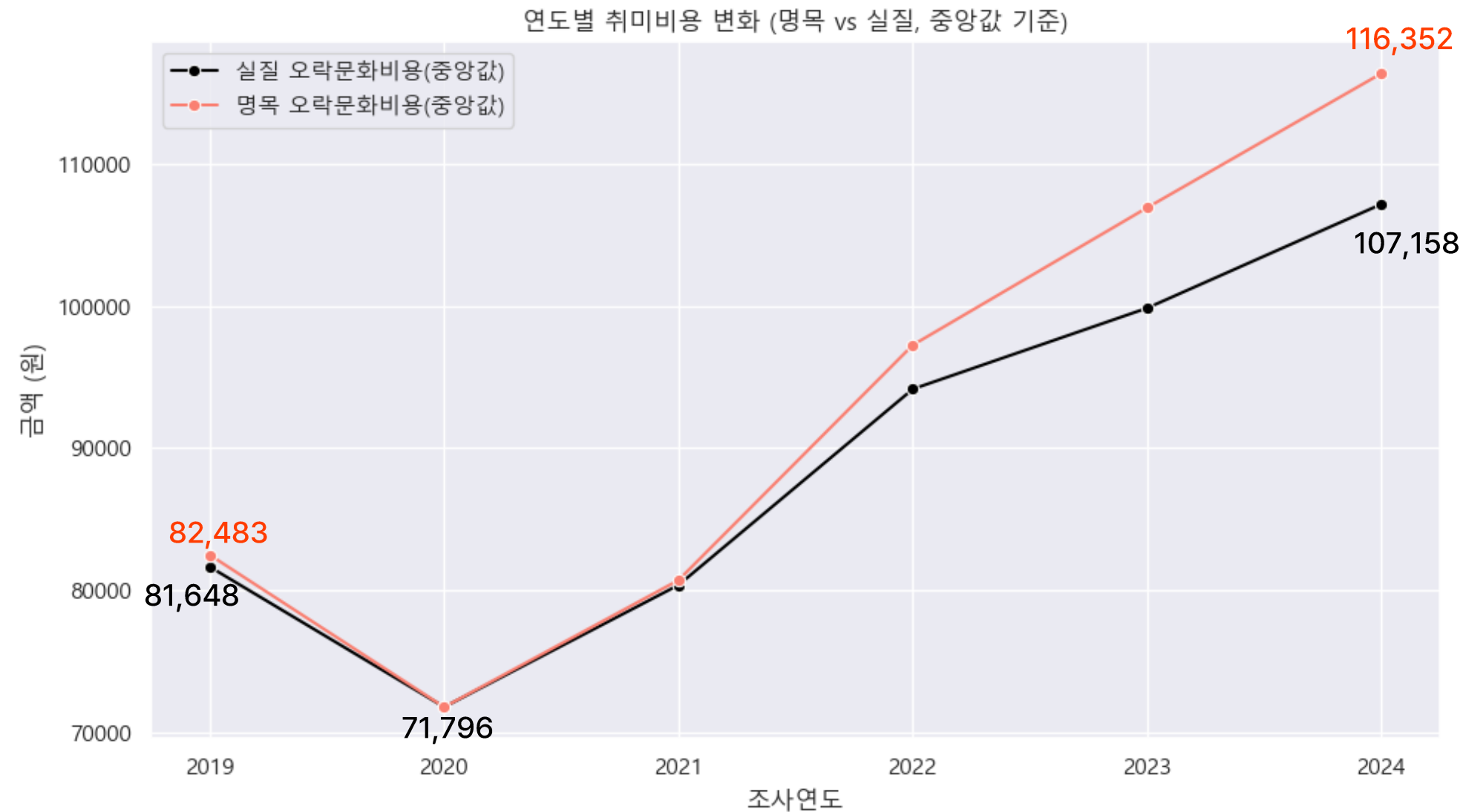
결과 1: 연도별 소비지출 총액 중 취미비용이 차지하는 비율



- 취미비용 지출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도별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외식지출과 유사하게 변동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음.
- 비중 변화만으로는 소비 패턴의 실질적 변화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본 분석에서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취미비용 지출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.

3. Result (3) 물가가 오르면 취미생활에 사용하는 비용을 줄일 것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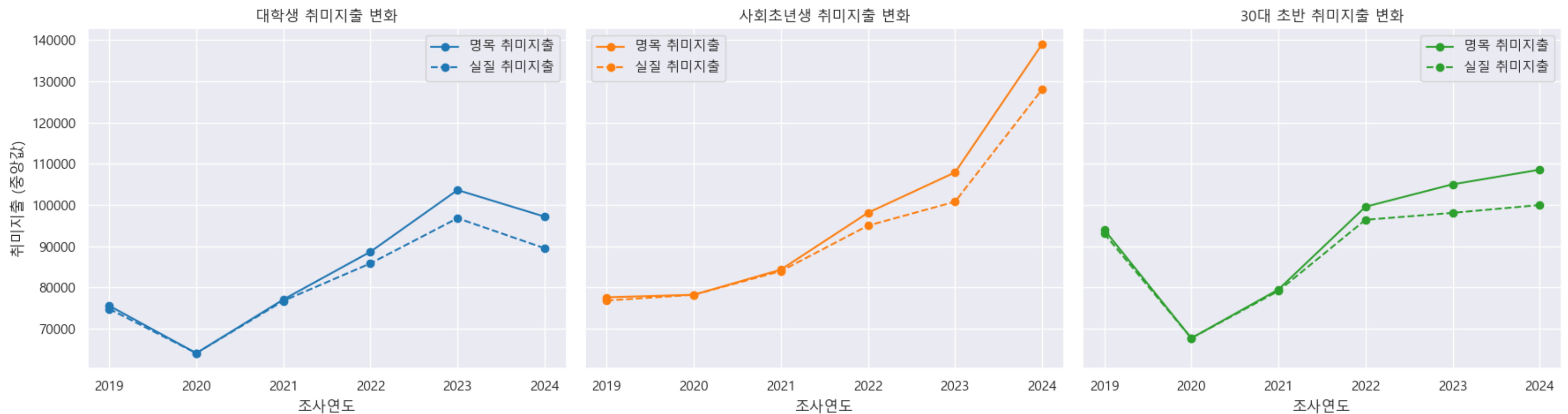
| 결과 2: 연도별 취미비용 지출 추이(명목 vs 실질)



- 2020년 일시적 감소 이후 취미 비용은 꾸준히 증가했으며, 명목지출이 실질지출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여 물가상승의 영향이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음.

3. Result (3) 물가가 오르면 취미생활에 사용하는 비용을 줄일 것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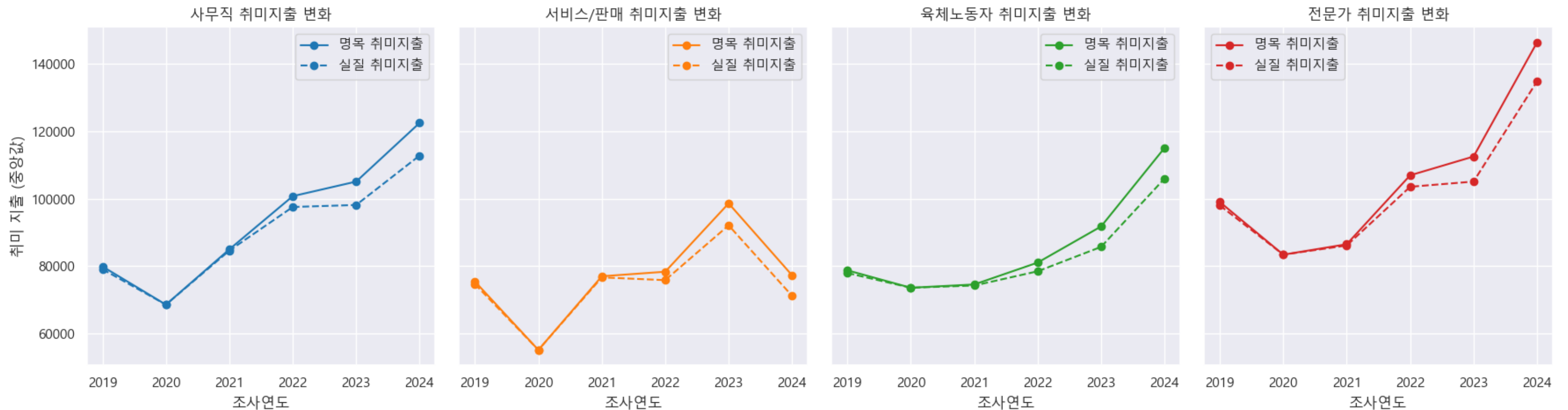
결과 3: 청년의 연령층별 취미비용 지출 변화 추이



- 팬데믹 이후 전 연령층에서 취미지출이 회복 및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, 특히 **사회초년생의 가파른 증가는 젊은 세대의 취미 생활의 중요성을 반영**할 수 있음.
- 반면 대학생의 경우 2023년 취미 지출이 정점에 달한 후 감소하는데,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취미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소비를 줄인 결과로 판단됨.
- 전 연령층에서 명목과 실질 취미지출 간 격차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 취미 비용 부담 증가를 시사함.

3. Result (3) 물가가 오르면 취미생활에 사용하는 비용을 줄일 것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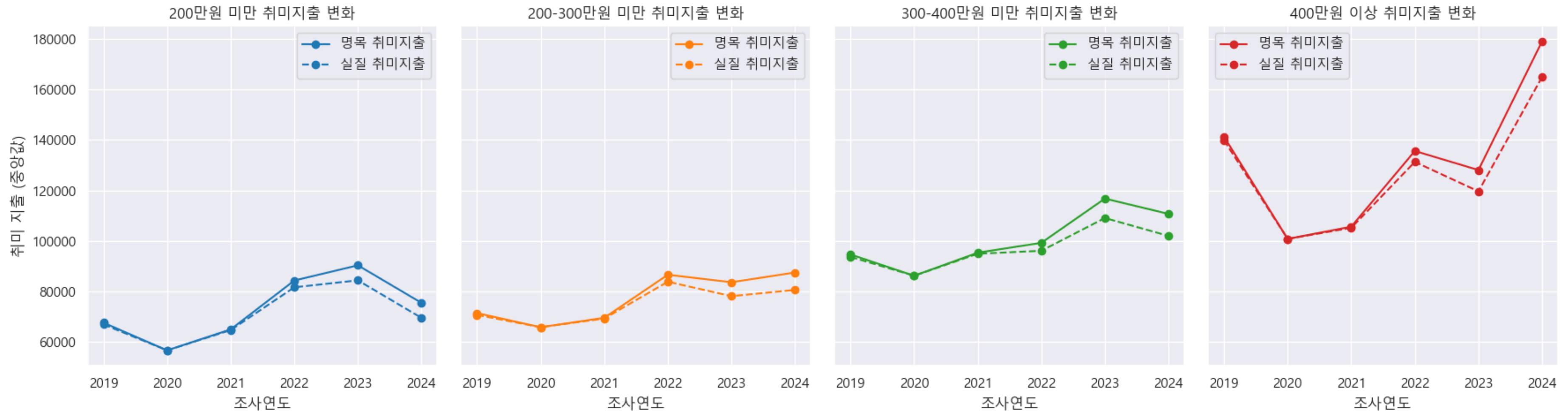
결과 4: 청년의 직업군별 취미비용 지출 변화 추이



- 서비스/판매직군을 제외한 모든 직군이 2020년 이후 명목 취미지출은 꾸준히 증가했지만, 실질 취미지출은 격차가 벌어지며 상대적으로 더디게 증가함.
- 서비스/판매직군의 2024년 취미지출 감소는 해당 직군이 경기 변동에 특히 민감함을 반영함.
- 이는 2024년 서비스/판매업 경기 악화, 고용불안,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출 우선순위에서 여가활동 비용을 크게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.
- 명목 및 실질 취미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, 실질지출증가가 명목지출에 비해 완만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제한 가능성을 시사함.

3. Result (3) 물가가 오르면 취미생활에 사용하는 비용을 줄일 것이다

결과 5: 청년의 소득별 취미비용 지출 변화 추이



- 2020년 팬데믹의 영향으로 모든 소득군에서 취미 지출이 감소했으나, 이후 **명목 및 실질 지출이 점진적으로 회복/증가하는 추세**를 보임.
- 저소득층과 300-400만원 미만 소득층 일부는 2024년 다시 취미 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음.
- 명목지출이 실질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반영하며, 소득 수준에 따라 취미 지출 규모와 회복 속도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.

4. Summary

01 물가가 오르면 필수품목과 비필수품목 중 비필수품목의 소비를 줄일 것이다 ▶ 청년 1인 가구의 다양한 소비 특성과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부분적으로만 타당

-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 1인 가구는 비필수 소비 비중이 필수 소비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며,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 경향이 나타남.
- 다만 연령별, 직업별, 소득별로 소비 패턴과 민감도가 다르게 나타나 단순히 물가 상승 시 비필수 소비가 줄어든다는 가설은 청년층 전체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.
- 특히 저소득층과 서비스/판매직군의 경우 물가 상승 부담으로 소비여력이 제한되지만, 고소득층과 사회초년생 등은 필수 소비 증가와 함께 선택적 소비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양상을 보임.
- 2024년 필수소비 비중 소폭 증가는 실질 소비 감소보다는 물가 상승에 따른 지출 증가로 해석되며, 소비 행태 변화는 복합적 요인의 결과임을 고려해야 함.
- 특히 저소득층,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인 집단일 수록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감소를 적극적으로 상쇄하지 못하고, 소비 축소라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높음. 이는 곧 숫자 너머의 포착되지 않는 생활 수준의 실질적 악화를 시사하며, 특히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청년층 저소득 가구일수록 경제 충격에 더욱 취약한 구조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.

4. Summary

02 물가가 오르면 외식에 사용하는 지출을 줄일 것이다

▶ 청년 1인 가구의 다양한 소비 특성과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일부 타당

- 2022년 이후 외식에 대한 명목 지출은 증가했으나 물가상승률이 이를 상회하면서 실질 외식지출은 정체하거나 감소함. 이는 같은 외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 구조로 해석할 수 있음.
- 대학생, 저소득층, 서비스/판매직과 육체노동직은 실질 외식지출을 줄이며 물가 충격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임.
- 반면 고소득층과 30대 초반은 실질 지출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 조정 여력이 큰 집단으로 나타남.
- 외식은 생활밀착형 항목으로 단사 상승에 따른 체감 물가 부담이 크게 나타났고, 모든 그룹에서 명목 대비 실질 지출간 괴리가 크게 확대되었음.
- 결론적으로 외식소비는 겉보기에는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실질지출 기준에서는 위축된 경향이 존재하며, 취약계층일수록 외식 소비를 줄이며 가격 충격을 흡수한 모습을 보였음. 이는 소비 선호 변화라기보다는 구조적 생계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음.

4. Summary

03 물가가 오르면 취미생활에 사용하는 지출을 줄일 것이다

▶ 청년 1인 가구의 다양한 소비 특성과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일부 타당

- 팬데믹 이후 전반적으로 취미 관련 지출은 회복 및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명목 지출이 실질 지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았음.
- 대학생, 저소득층, 서비스/판매직군 등의 일부 계층에서는 실질 취미지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, 사회초년생, 30대 초반, 중상위 소득군에서는 실질 지출도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양상이 관찰됨.
- 지출이 감소한 그룹은 공통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낮거나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직군으로 경제 불확실성과 맞물려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임. 반면 지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그룹은 취미생활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- 또한 취미지출은 외식지출에 비해 실질-명목 간 격차가 작아 일정 수준의 구매력 방어가 이루어진 분야로 해석할 수도 있음.
- 제시한 가설은 일부 집단에서는 명확히 지지되나, 전반적인 추세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임.
- 따라서 본 가설은 부분적으로 타당하나 취미 지출은 단순한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닌 집단별 우선순위와 가치 인식에 따라 달리 반응하는 항목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.
- 저소득층이나 일부 직업군은 시간, 공간, 사회적 자원의 제약이 커 비용 외에도 취미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부족할 수 있음 (예: 장시간 노동, 불규칙한 근무시간, 지역 내 취미시설 부족 등). 다만 본 분석에서는 소득이 있어도 즐길 수 없는 구조적인 여건은 고려할 수 없었음.



THANK YOU

감사합니다

